

조영택 텃밭사수나 천정배 돌풍이나

■ 광주 서구를 보선 관전포인트

새누리 정승 '제 2의 이정현' 될까

진보정당 강은미 후보 선전여부 주목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 사수' 여부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돌풍'이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여부다.

여기에 그동안 선전해온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이번을 연출할 수 있을지와 정의당 강은미 후보의 선전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아권 심장부 혈투=그동안 광주 선거의 특징은 전통적인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표심 향배에 따라 선거 승패가 갈렸었다. 이 때문에 광주는 '아권의 텃밭' '아권의 심장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하지만, 지난 제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의 패배에 이어 지난해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4·29 재보선에서 보여준 새정치연합의 '공천 논란'으로 인해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여기에 당내 계파 간 갈등과 제1야당 역할론 부재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일당독점 폐해'와 '호남정치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고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선거전 내내 새정치연합 대 반(反)새정치연합 구도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기간 동안 광주를 6차례 방문, 당 개혁과 정권교체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안방 사수'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 측은 "선거 초반 후보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낮아 당황했지만,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와 특히 문 대표가 골목을 돌며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뚜벅이 유세'를 통해 진정성을 느낀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후보 측은 "많은 유권자들이 야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력을 서구에 집중했지만, 지역민의 실망감은 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기대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서구 유세의 전통적 야당 지지층이 새정치연합에 또 한번 정권

교체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호남발 정계 개편'의 단초를 만들어줄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누리 정승 후보, '이번 연출'?=아권 텃밭인 광주에서 새누리당 정승 후보의 '이번 연출'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여당이 '제2의 이정현'을 기대하며 전략공천한 정 후보의 저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권 분열' 상황 속에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총력 지원 유세 탓에 지지도 상승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이 최고위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마치 자신의 선거운동 마냥 적극 지원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 측은 "선거기간 중 '지역 일꾼

론'대 '정치꾼' 구도를 내걸어 유권자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고,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1년만 써보십시오'라는 읍소형 선거 구호도 독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내심 당선 기대감도 내비쳤다. 따라서 정 후보의 '이번 연출'과 가능성과 함께 정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사다.

▷진보정당 강은미 선전여부=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 강은미 후보의 선전여부도 주목된다. 강 후보의 경우 광주 서구의회와 광주시의원을 거치면서 지방의원 지역구였던 금호동·서창동에서는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강은미 후보도 만만치 않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소가 28일 전남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가운데 사무 종사원들이 개표기를 점검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해달라”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우승희(새정치·영양1)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지난 2009년 제정을 거부하고 2010년부터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제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정을 요구하는 야당대표의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 유발 당사자인 국가보훈처와 논의하라고 한 것은 국론 분열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5·18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즉각 지정해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시·도의원 입법보좌관 신설

안행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년부터 광역시·도의원에게 입법 보좌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3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정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내년 6월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의 초반에는 이들 보좌관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책 보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 비서처럼 남용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의원이 아닌 의회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전문적 보좌관의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정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양사고시 선장·도선사 음주측정 의무화

농축해수위 관련 법안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운항자나 도선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 등에 대한 음주측정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관제 교신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반드시 보존하도록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안전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한 '세월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우윤근 원내대표 “대화·소통은 불변의 진리”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제…“박대통령 대국민 사과 시기 놓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28일 임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직을 맡은 우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7일까지. 그러나 다음달 5일이 어린이날인 관계로 건너뛰게 돼 28일이 우 원내대표의 마지막 회의가 됐다. 원내대책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로서,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여야 주례회동을 비롯한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은 불변의 진리라 생각한다”며 “동서고금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소통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궁하면 반드시 변화야 하고 변하는 것이 뭔가 통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통하면 오래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누구는 타협가, 협상가라고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동의하



지 않는다”며 “협상하고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둘 다 통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밝히고, “야당이 책임 있는 국정파트너로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화·소통은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궁하면 반드시 변화야 하고 변하는 것이 뭔가 통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통하면 오래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로서,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 여야 주례회동을 비롯한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은 불변의 진리라 생각한다”며 “동서고금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소통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궁하면 반드시 변화야 하고 변하는 것이 뭔가 통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통하면 오래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누구는 타협가, 협상가라고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동의하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나는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광역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여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